

자조금소식



자조금 미납도축장 법적조치 입장 재차 표명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양돈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에 대해 부득이하게 형사고발을 취했다.

당시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 최고 독촉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자조금을 유용한 10개 도축장에 대해 부득이 형사고발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김익환 부회장, 김호길 전무, 간명철 이사 등 위생처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9월 4일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최근 관리위원회가 취한 형사고발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명규 위생처리협회장은 “최근 도축두수가 감소해 도축장 가동률이 떨어져 도축장마다 경영이 어렵다”며 “도축장에서 자조금 수납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형사고발 보다는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수납한 자조금을 유용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

안 미납도축장에 대해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요청을 하는 한편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으나, 5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한 도축장은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양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양돈자조금 거출 시 · 도 지자체 협조 중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시 · 도 공무원의 자조금 거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관리위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각 시 · 도에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일부지역에서 양돈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장에서는 미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조금 수납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양돈농가들이 양돈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활용해 유통상인과 돼지 거래시 자조금 납부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조금 재원 확대방안 연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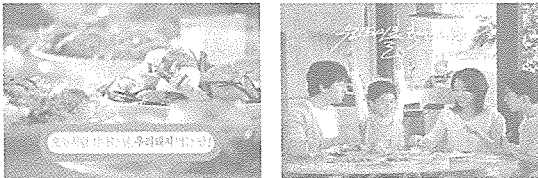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의 적정조성 규모 예측을 통해 장기적인 양돈자조금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돈자조금 재원 확대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한국자조금연구원 연구위원인 건국대 김민경 교수가 담당해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돈산업의 공공이익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회의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해 지난 9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소재 자조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사업 계획 관련 회의를 통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협의했다.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 9월부터 케이블 확대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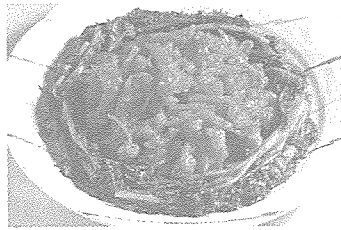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인 “신나는 날, 우리 돼지 먹는 날” 캠페인이 9월부터 케이블 매체로 확대되어, 기존의 공중파 매체와 더불어 케이블 매체인 YTN, J채널 등을 통해 방영된다.

케이블 TV광고 방영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제2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돈가 하락기에 접어든 9월부터 공중파 매체보다 저렴하면서도 시청률이 안정된 케이블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노출 횟수를 늘리고 광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9월 광고운영비는 총 5억5천3백만원으로 지상파 TV광고 4억5천만원, 케이블 TV광고 3천3백만원, 라디오광고 7천만원이다.

단체급식 요리 개발 보급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숙명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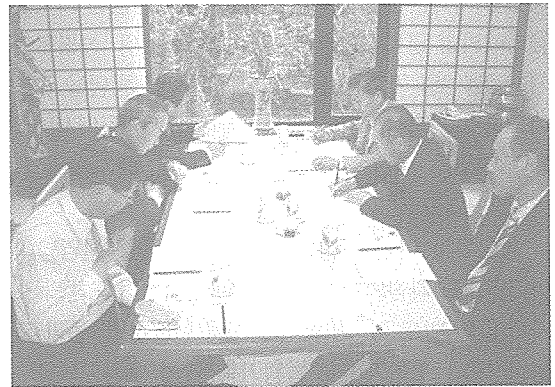


한국음식연구원(원장 한영실)에 위탁하여 30여종의 단체급식 요리를 개발하고, 이를 요리 책자로 제작

해 보급키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이달 중 요리 책자를 제작하고, 12월 말경 영양사협회와 협조하여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제3차 양돈자조금 자문위원회 개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9월 20일 오전 7시 서울 반포에 위치한 팔래스호텔에서 2006년 제3차 양돈자조금사업 자문위원회(자문위원장 정찬길)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나눴으며, 자문위원들은 양돈자조금 당초 취지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FTA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확충하는 등 사업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찾는 우리돈육